접속 부사의 사용에 따른 설득문과 보도문의 대응 분석

김혜영○, 강범모
줌 인터넷, 고려대학교
simpson15@korea.ac.kr, bmkang@korea.ac.kr

Correspondence Analysis of Reports and Persuasives based on a Newspaper Corpus

Hye-Young Kim○, Beom-Mo Kang
Zum internet, Korea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신문의 2000~2011년 신문 사설과 보도문에서서 나타나는 접속부사의 사용에 대한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텍스트 구조를 드러내는 표지의 기능을 하는 접속부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2년 동안 출현한 고빈도 접속부사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그리고, 따라서,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면, 그러므로, 하물며'를 대상으로 보도문에서의 빈도 변화와 신문 사설에서의 빈도 변화를 대응 분석과 군집 분석을 통해 객관적, 통계적, 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나열의 구조에서 보도문은 '그리고'를 선호하고 신문 사설은 '하물며'를 선호하여 사용하며, 대조의 표지로서 보도문은 '하지만'을 신문 사설은 '그러나, 그렇지만'을 선호하여 사용하였다. 화제 전환을 나타낼 때 보도문은 '그러면'을 사용하는 반면 신문 사설은 '그런데'를 사용하고, 문제에 대한 결과를 제시할 때 '보도문'은 '그러므로, 그래서'를 신문 사설은 '따라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주제어: 신문 사설, 보도문, [물결 21] 코퍼스, 접속 부사, 대응 분석, 군집 분석

1. 서론 및 관련 연구

담화에서 문장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항목은 화자나 작가가 앞으로 이야기하려는 대상으로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1]. 이러한 항목(주제; theme)은 명사구, 부사구, 전치사구, 접속부사 등이 될 수 있다. 이 중 접속부사는 'that is, moreover, meanwhile, likewise, in other words' 등과 같이 선행 텍스트와 해당 문장 사이를 연관시키는 것을 말한다[1]. 즉 작가가 말하는 내용간의 관계를 알리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시작할 때 이는 문장의 시작 부분에서 등장하기 쉽다. 또한 접속부사는 텍스트의 구조 자체를 나타내는 표지가 될 수 있다[2]. 즉, 접속부사를 살펴봄으로써, 단락과 단락 사이의 의미 구조 관계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고 이러한 구조적 파악을 통해 주제 파악 또한 가능한 것이다. [3]은 논증문에서 접속부사가 주된 논증 관계를 가장 잘 보여준다며 시간관계(temporal connectives: first, when, now, then 등), 인과관계(causal-conditional connectives; so, consequently, moreover, as a result of 등), 비교관계(comparative connectives; however, rather, whereas 등), 첨가관계(additive connectives; also, but, and, in addition, while 등)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4]는 이러한 텍스트 구조를 구성하는 표지를 명제의 연결 관계와 문장 단위 연결, 내용 단락 단위의 구조를 살펴서 '나열, 강조, 인과, 예시-정의, 포괄-분류, 대조-비교, 전환' 의 일곱 가지 종류의 표지로 분석한다.[1] 따라서 본 절에서는 텍스트 구조를 드러내는 표지의 기능을 하는 접속부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2년 동안 신문에 출현한 고빈도 접속부사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그리고, 따라서,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면, 그러므로, 하물며' 를 대상으로 보도문에서의 빈도와 사설에서의 빈도를 대응 분석과 군집 분석을 통해 분석, 기술할 것이다.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물결 21] 코퍼스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 [물결 21] 코퍼스는 대규모 신문 언어 자료를 통한 한국의 언어, 사회, 문화적 특성과 그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물결 21] 사업에서 구축된 신문 텍스트이다. 이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과 협약을 맺어서 2000년 이후의 전체 기사문을 제공받아 코퍼스로 구축한 것이다[5].

[물결 21] 코퍼스는 현재 2000년~2011년까지의 자료, 즉 약 5억 어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신문 사설 수는 약 4만 천여 개, 어절 수는 약 천백만 어절에 이른다. 신문 사설의 수는 전체 기사문 수의 약 1.8%를 차지하고, 어절 수는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1) 나열구조 표지는 '등, 또, 또한, 다시, 아울러, 더불어' 등이, 강조구조 표지는 '가장, 특히, 매우, 특히' 등이, 인과구조 표지는 '따라서, 그러므로, 그러면, 그래서, 비로소' 등이, 예시-정의구조 표지는 '즉, 말하자면, 실제' 등이, 포괄-분류구조로는 '모두, 함께, 각각' 등이, 대조-비교구문은 '그러나, 하지만, 혹은, 반면' 등이, 전환구조로는 '그런데, 한편, 물론' 등이 있다[4].

표 1 신문 사설과 연구대상인 보도문의 기사 수 및 어절 수

사설 수	사설 어절 수	사설 1개당 평균 어절 수	보도문 기사 수(일부)	보도문 기사 어절 수(샘플링)
41,482	10,631,033	256.28	163,349	36,406,459

연구 대상으로 삼은 샘플링된 보도문의 기사 수(전체 기사문의 1/10 규모)는 신문 사설의 약 4배의 크기이다. 표 2는 보도문과 신문 사설에 12년 동안 출현한 접속부사의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 대상이 되는 접속부사는 코퍼스에서 고빈도 순으로 선정하였다.

표 2 보도문과 신문 사설에서의 접속부사 사용 빈도(십만 어절 당)

목록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A그러나	53,747	49,707	49,257	48,141	46,972	42,850	37,993	36,048	35,687	33,340	29,728	28,968
A따라서	6,683	6,632	6,083	6,259	5,741	5,652	5,299	5,448	4,915	4,933	4,433	3,415
A그리고	8,739	9,182	9,347	9,128	8,338	9,672	9,654	9,308	8,193	7,322	8,825	8,463
A그런데	4,075	4,522	4,509	5,127	5,004	6,080	6,656	7,448	6,937	6,534	7,912	7,463
A하지만	18,553	21,400	22,304	22,147	24,613	24,795	28,547	29,685	33,836	38,043	37,256	40,923
A그래서	4,626	4,762	4,973	5,329	5,608	6,364	6,529	6,830	6,245	5,890	7,117	6,513
A그렇지만	1,188	1,078	887	973	1,014	1,212	1,356	951	769	655	794	681
A그러므로	179	287	244	227	203	294	616	532	238	231	290	222
A그러면	708	848	794	834	835	837	841	954	814	720	868	947
A하물며	68	71	60	52	45	59	61	66	45	50	77	47
B그러나	52,048	51,681	48,716	44,643	43,064	46,929	46,929	47,370	48,944	42,589	38,860	30,913
B따라서	10,723	10,562	9,208	9,249	10,291	6,820	6,820	3,535	4,555	3,892	4,834	2,749
B그리고	10,410	10,487	11,996	8,539	7,055	7,204	7,204	5,997	6,250	7,733	6,466	7,351
B그런데	10,097	10,988	10,314	14,263	13,981	13,482	13,482	16,751	14,415	13,063	14,885	15,951
B하지만	9,575	9,007	13,324	16,873	18,511	17,096	17,096	17,572	17,232	23,249	28,489	31,595
B그래서	4,305	4,014	3,586	3,892	4,531	6,210	6,210	5,661	5,590	5,905	4,129	6,862
B그렇지만	913	1,179	1,262	1,122	690	836	836	926	1,430	1,151	1,248	1,068
B그러므로	757	702	354	69	43	90	90	231	264	406	192	261
B그러면	391	301	221	343	820	655	655	968	726	508	480	875
B하물며	391	401	531	229	345	294	294	274	176	169	64	227

표 2에서 A는 보도문을, B는 신문 사설을 의미하며, 십만 어절 당 상대빈도로 재계산하였다.

대응 분석은 분할표 자료에 대해 행과 열 범주간의 유사성, 연관 관계, 상호 관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 방법이다[6]. 즉, 범주형으로 관측된 두 변수간의 관계를 다차원 공간상(perception map)에서 시각적·도식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대응 분석은 이원 분할표에 기재된 행과 열의 모든 범주들 사이의 상대적 분포에 대해서 통계적인 상관관계와 군집 유형을 보여준다. 이 때, 행렬의 산점도에 대해서 참조선을 표시하여 정규화할 수 있다. 열 범주와 행 범주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열 범주 좌표를 원점에 대해 화살표로 나타내고, 행 좌표를 이들 두 축에 직교하는 점선을 표시하여 상관성을 해석할 수 있다. 주로 대응 분석은 통계 모형이나 가설에 대한 관찰 자료의 검증이 아닌 관찰 자료의 분포적 특성에 대한 해석을 목적으로 할 때, 살펴보고자 하는 범주의 상대 분포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리고 시각적인 자료 해석을 목적으로 할 때 사용한다[7].

본 연구에서는 대응 분석을 R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R 통계 프로그램에서 대응 분석은 ca package를 설치한 후 plot(ca())함수를 사용한다[7]. 활용 예시는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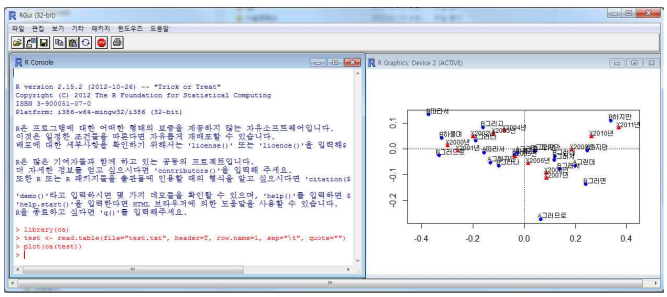

그림 1 R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응 분석 예시

대응 분석에서는 차원 축소된 공간에서의 행과 열 범주 좌표값이 정규화 방법에 따라 계산된다. 그림 1에서처럼 행 범주에서 한 차원 좌표평면 상에 위치한 범주들 간의 거리는 유사성 정도를 나타내서 가까이 위치한 범주일수록 유사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열 범주 좌표차원에서는 열 범주 좌표를 원점에 대해서 화살표로 나타내서 이들 두 축에 직교하는 점선을 표시한 후 더 가까운 쪽과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연구 결과

표 2에서 12년 동안 추출된 보도문에서의 사용 분포는 '그러나>그런데>따라서>그리고>그래서>하지만>그렇지만>그러므로>그러면>하물며'의 순으로, 신문 사설에서는 '그러나>하지만>그런데>그리고>따라서>그래서>그렇지만>그러면>그러므로>하물며'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러나'는 신문 사설과 보도문 모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접속부사로 나타났다. '그러나'는 텍스트 생산자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논의의 범위를 확대시키거나 한정하는 방법으로 텍스트를 발전시키고 전개하는 등, 텍스트의 주제를 드러내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8]. 특히 논증문에서는 주제를 전개하는 표지로 텍스트 생산자의 신념이나 의견을 펼치는 데에 사용된다. 대체로 설명을 나타내는 글에서는 논리적 대등관계를 형성하는 나열 구조를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보도문과 신문 사설 모두 '그러나'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 보도문과 신문 사설에서의 ‘그러나’ 사용 예시

ㄱ. 보도문에서의 사용 예시

- 잡스로서도 당시 IT업계의 황제였던 MS의 게이츠를 견제하기 위해 구글의 슈밋이 필요했다. **그러나** 잡스와 슈밋의 밀월은 오래가지 못했다.

ㄴ. 신문 사설에서의 사용 예시

- 최근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 곳곳에서 복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정책이라면 당연히 원칙이 분명하고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1)에서 보도문과 신문 사설에서 사용된 ‘그러나’의 사용 의미는 상이하다. 대체로 선행문에서 기대하는 바는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에 부합하는데, 이러한 기대가 선행 문장으로 인해 야기되긴 하지만 후행 문장에서 진술하는 사실이 그와 부합하지 않을 때, 보도문에서는 ‘그러나’를 사용해서 두 문장을 접속하고 있다. 반면 신문 사설에서 ‘그러나’는 작자의 가치 평가 속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필자의 주관에 의해 결정될 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그러나’는 ‘안타깝다, 다를 것 없다’ 등의 술어와 함께 앞의 사실에 의한 대조보다는 훨씬 작가의 주관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즉, 보도문에서의 ‘그러나’의 사용은 함축적인 성향을 가지지만, 신문 사설에서의 ‘그러나’는 주관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은 보도문보다 신문 사설에서 더 많이 사용된 접속부사로 그림 2에서 나타났다. ‘그러나’와 ‘그렇지만’은 1.1배 가량, ‘하지만’은 3.5배 가량 신문 사설에서 그 쓰임이 더 많다. 이들은 모두 앞에서 기술한 내용과 반대 내용을 지시할 때 사용되는 표지로[4], 이들의 12년간 사용 분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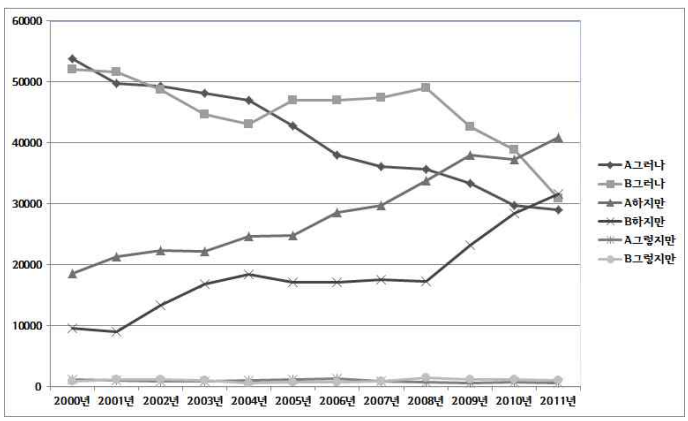

그림 2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의 12년간 사용 분포(십만 어절 당)

그림 2에서 A는 보도문에서의 사용을, B는 신문 사설에서의 사용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세 개의 접속부사 모두 문제가 되는 상황을 제시한 이후에 원인을 진단, 평가하거나 구체적, 혹은 좀 더 심각하게 제시할 때 사용하기 위해 쓰인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러나’가 이러한 역할을 대표하듯이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하지만’은 그 다음으로, ‘그렇지만’은 미미한 사용을 보였다. 하지만 2011년에 이르러서는 보도문과 신문 사설에서 ‘그러나’보다 ‘하지만’의 사용이 더 많다. 즉, 신문 텍스트에서 과거에는 대조를 나타내는 문맥에서 ‘그러나’를 주로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하지만’을 선호해서 사용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2]에서는 논증텍스트 구조는, 문제는 기존의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문제제기 단락 앞에는 문제 발생 전의 상황을 제시하는 단락이 오고, 이후 배경제시 부분은 ‘배경-[문제-해결]-평가’의 3분 구조의 첫 부분을 담당한다고 기술한다. 이후에 필요한 상황을 보여주거나 사건에 대한 견해를 첨언하는 내용이 따르고 화자의 주장이나 단언을 나타내는 해결을 제시한 후(‘문제-해결’), 정리, 요약을 통해 텍스트를 마무리하여(마무리 부분) ‘정반합’ 구조를 신문 사설에서는 보여준다. 특히 ‘배경’과 ‘평가’ 부분보다는 텍스트의 절대적 비중은 내용의 구조를 나타내는 ‘문제-해결’ 부분에 있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이러한 논증문의 구조 단위에 따라 텍스트의 구조를 구성하는 표지를 분류해보았다.

표 3 논증 구조에 따른 접속부사의 표지 구분

배경	배경 제시 및 나열구조 표지	그리고, 하물며
문제-해결	문제 진단을 위한 대조 표지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화제 전환 및 문제 야기	그런데, 그러면
평가	문제 해결 및 결과 제기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표 3에 따른 보도문과 신문 사설에서의 표지별 사용 분포는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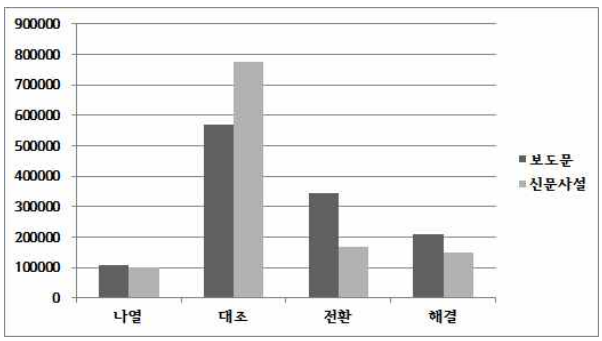

그림 3 접속표지에 따른 보도문과 신문 사설의 사용 분포(십만 어절 당)

대조를 나타내는 표지인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

만’의 사용은 신문 사설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그 밖에 배경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의 결과나 평가를 나타내는 표지들은 보도문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나열 구조를 나타내는 표지인 ‘그리고’와 ‘하물며’는 다른 접속 표지와는 달리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의 연결 고리 역할 뿐만 아니라, 문장 중간에도 출현하는 경향을 보여 다른 접속부사와는 신문텍스트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그림 4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발간 년도에 따라 보도문에서 접속부사와 발간 연도 사이의 대응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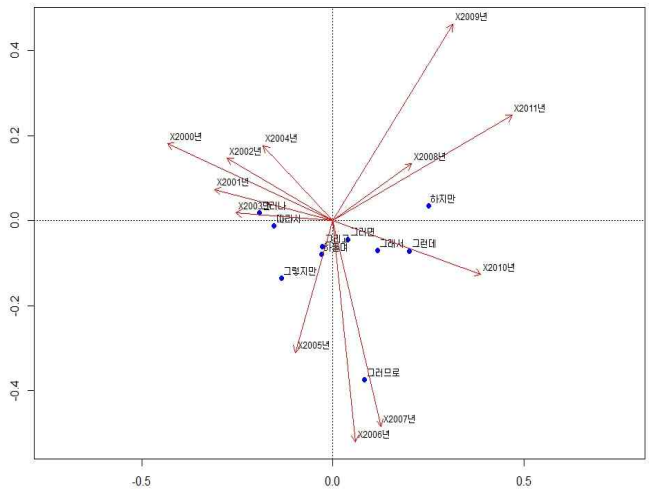

그림 4 보도문에서 접속부사의 사용 양상

2사분면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3사분면은 2005년의, 4사분면은 2006년부터 2007년과 2010년의, 1사분면은 2008년부터 2011년의 분포 공간으로 나타났다. 이때 각 사분면에 위치하는 접속부사들은 해당 연도의 보도문에서 가장 우세한 분포 성향을 보인다. 즉, ‘그러나’와 ‘따라서’는 2000년대 초반에 우세하게 쓰인 반면, 2000년 후반에는 ‘그러면, 그래서, 그런데, 하지만’이 우세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접속부사와 원점, 발간 시기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여 접속부사와 발간 시기의 상관성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나, 따라서’는 감소 추세를, ‘그러면<그래서<그런데<하지만’의 순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두 발간 년도 중간에 위치한 ‘그렇지만, 하지만, 그러면’은 두 발간 시기 사이의 분포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발간 연도의 선에 분포해 있는 ‘그러나, 그리고, 하물며, 그러므로, 그런데’는 해당 발간 연도와 분포 차이가 현저한 특징을 드러낸다. 또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와 2006년부터 2007년 사이는 각도가 적게 나타나서 해당 연도 사이에는 보도문의 분포적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점은 대응 분석에 의한 결과에서 전체 접속부사에 대한 전체 발간 시기의 일반적인 분포를 나타낸다. 따라서 원점으로 가장 멀리 위치하는 ‘그러므로’는 2007년에 분포 강도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원점에 근접하는 ‘그리고, 하물며, 그러면’은 2005~2007년에 대한 분포적인 상관성이 있지만 다른 발간 연도의 분포와 비교해서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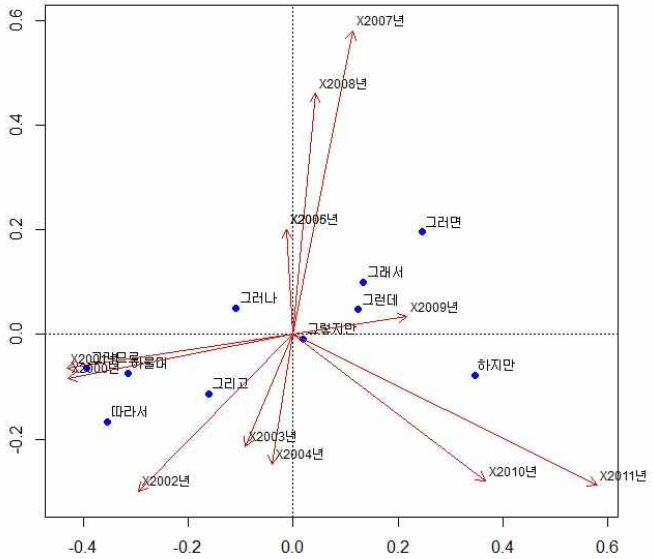

그림 5 신문 사설에서 접속부사의 사용 양상

그림 5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발간 연도에 따른 신문 사설에서의 대응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3사분면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1사분면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4사분면은 2010년부터 2011년의 분포 공간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러므로, 하물며, 따라서, 그리고’와 같은 문제의 배경이나 결과를 설명하는 접속부사들이 우세하게 쓰인 반면, 2000년 후반에는 ‘그렇지만, 그런데 하지만’ 등 문제와 해결을 나타내는 접속부사가 우세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하물며, 따라서, 그리고, 그러나’는 12년 동안 감소 추세를 나타낸 반면,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하지만’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와 2003년부터 2004년 사이, 그리고 2006년부터 2008년 사이는 각도가 적게 나타나서 해당 연도 사이에는 신문 사설의 분포적 유사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문과 신문 사설 각각에서 우세한 접속부사의 표지별로 구분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보도문과 신문 사설에서 더 우세한 접속부사의 분류

	보도문	신문 사설
배경 제시 및 나열구조 표지	그리고	하물며
문제 진단을 위한 대조 표지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화제 전환 및 문제 야기	그러면	그런데
문제 해결 및 결과 제기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

보도문은 2000년~2001년 사이에 ‘그리고’를 중심으로 텍스트 구조를 형성하여 이유, 나열의 기술을 사용하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는 보도문의 성격이 ‘그러면’과 ‘하지만’을 활용하여 화제를 전환하거나 문제를 제시하는 성격이 점차 짙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신문 사설에서는 ‘그러나, 그렇지만’처럼 문제를 진단하는 성격의 표지를 2000년대 초반에 주로 사용하여 점차 ‘그런데’를 사용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신문 사설에서는 항상 문제를 제시하거나 진단하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도문과 신문 사설의 성격 차이가 문제 제시를 중점적으로 나타내는 방향으로 귀결되어 가고 있고, 한때 벌어졌던 텍스트 구조의 차이가(2003~2008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다음 그림은 켄달 지수에 따른 보도문과 신문 사설에서의 접속사 군집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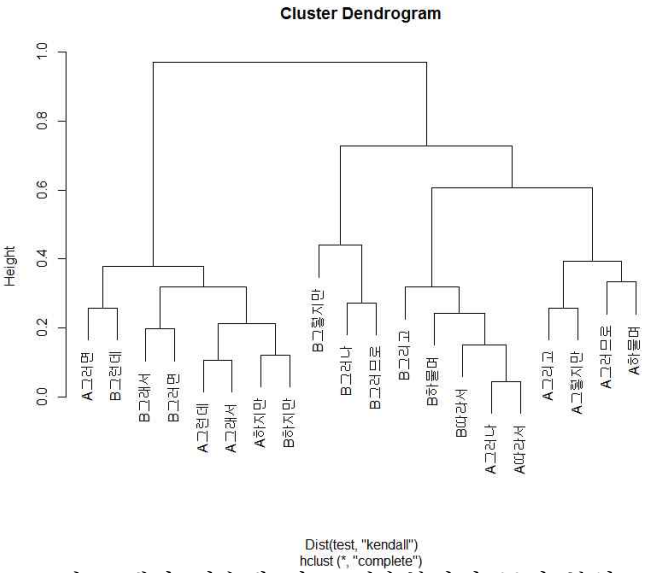

그림 6 켄달 지수에 따른 접속부사의 군집 분석

보도문에서 사용되는 접속부사 ‘그리고, 그렇지만, 그러므로, 하물며’와 신문 사설에서 사용되는 ‘그리고, 하물며, 따라서’는 수직선의 길이가 유사하여 텍스트에서의 중요도 면에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접속사 사용의 의도나 의미상에 두 그룹은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그러나’의 사용 정도는 보도문에서는 ‘따라서’와 상관성을 보이지만, 신문 사설에서는 ‘그러므로’와 상관성을 보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신문 사설이나 보도문 모두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한 대조 표현으로 ‘그러나’를 사용하지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기 위해서 신문 사설은 ‘그러므로’를, 보도문은 ‘따라서’를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신문 사설에서 ‘그러므로’, 보도문에서 ‘따라서’의 사용 예시

ㄱ. 신문 사설에서의 ‘그러므로’의 사용 예시

・많은 이가 법규를 지키느라 애를 쓰는데 법규를 어긴 사람을 주기적으로 사면해 주면 형평에 맞지 않다. 그리고 “제재를 받아도 얼마 안 있어 사면될 것”이라는 풍조가 새기면 준법의식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사면권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신중하고 엄격하게 행사돼야 한다.

ㄴ. 보도문에서의 ‘따라서’의 사용 예시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한다면 서울지하철 사상 처음으로 합법 파업이 된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 s사업장에서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파업을 못하게 막았던 직권중재 제도는 지난 연말로 폐지됐다. **따라서** 예전처럼 지하철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투입해 업무를 정상화하는 방식은 어렵게 됐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물결 21] 코퍼스를 사용하여 신문 사설과 보도문에서의 어휘 사용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그러나’는 신문 사설과 보도문 모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접속부사로 나타났다. 즉, 보도문과 설명문 모두 대조의 표현이 자주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보도문에서만 많이 쓰이는 접속부사는 ‘그런데’로 2.2배 정도 더 사용이 많았는데 이는 보도문이 텍스트의 화제를 바꾸는 경향성이 신문 사설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평가를 표시하는 접속부사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는, 신문 사설에서 ‘따라서’와 ‘그러므로’가 각각 2배 정도 더 많이 사용된 반면, ‘그래서’는 보도문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 각각의 접속사를 텍스트에서의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면 대조를 나타내는 표지인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의 사용은 신문 사설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그 밖에 배경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의 결과나 평가를 나타내는 표지들은 보도문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나열의 구조에서 보도문은 ‘그리고’를

1) 두 관찰치 사이의 유사성을 측정할 때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유클리디안 거리(두 관찰치 사이의 거리 측정), 유클리디안 제곱거리(유클리디안 거리의 제곱값), 맨해튼 거리(두 관찰치 사이의 거리로 각 변수값 차이의 절대값의 합) 등이 있고,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코사인값(두 벡터 X와 Y 사이의 코사인값으로 유사성을 측정), 상관계수(X와 Y 사이의 상관계수로 유사성 측정), 켄달 지수(등위로 상정한 결과값 측정) 등이 있다. 군집 분석은 R 통계 패키지에서 amap package를 설치한 후 hclust()를 사용하였다[9]. 또한 관찰치들의 군집화 과정에서 관찰치들을 순차적으로 유사성의 순서에 따라 연결할 때의 연결방법에는 최단연결법(single linkage), 최장연결법(complete linkage), 중심연결법(centroid linkage), 평균연결법(average linkgage), 워드의 방법(Ward's method)가 있는데 여기서는 각 관찰치가 가장 큰 값(유사성이 가장 작은 값)을 기준으로 연결하는 최장연결법을 사용하였다[10].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방법 중 가장 그룹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난 켄달 지수를 소개한다.

선호하고 신문 사설은 '하물며'를 선호하며, 대조의 표지로서 보도문은 '하지만'을 신문 사설은 '그러나, 그렇지만'을 선호하여 사용하였다. 화제 전환을 나타낼 때 보도문은 '그러면'을 사용하는 반면 신문 사설은 '그런데'를 사용하고, 문제에 대한 결과를 제시할 때 '보도문'은 '그러므로, 그래서'를 신문 사설은 '따라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과 '그러나'는 공통적으로 대조를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된다. 신문에서 이들의 사용은 '그러나'를 2000년대 초반에 주로 사용하다가 '하지만'의 사용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는 보도문보다 신문 사설에서의 변화가 좀 더 늦게 나타난다. '하지만, 그래서, 그러면, 그런데'는 다른 접속 부사들에 비해서 구어성이 더 높은데, 2000년대 후반에 올수록 이들의 사용이 선호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나서 신문 문체가 구어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보도문이 먼저 변화하고, 신문 사설은 좀 더 늦게 나타남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신문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여느 글에 비해 문어의 특징을 강하게 지니고 잘 다듬어진 글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신문 사설과 보도문의 접속 부사 사용의 (2000년대)변화 양상과 쓰임의 차이, 글의 구조의 차이에 대해서 경험적, 객관적, 통시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1] R. Fowler, Language in the news: Discourse and ideology in the press, NewYork: Routledge, 1991.
[2] 신지연, "국어 텍스트의 거시구조 접속", 시학과 언어학 11, 7-23, 2006.
[3] P. Knapp and M. Watkins, *Genre, Text, Grammar: technologies for teaching and assessing writing,*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2005.
[4] 양태영, "설명텍스트의 표지와 텍스트구조 분석", 한국어의미학 31, 109-142, 2010.
[5] 강범모, 김흥규, "명사 빈도의 변화, 관심의 사회적 트렌드: 물결 21 코퍼스 [2000-2009]", 언어학 61, 3-38, 2011
[6] 양경숙, SPSS 최적 범주형 자료분석, 한나래아카데미, 2009.
[7] M. Greenacre, Correspondence Analysis in Practice, Boca Raton: Chapman & Hall/CRC, 2007.
[8] 신지연, "논증텍스트에서의 '그러나'의 주제 전개 기능", 텍스트언어학 16, 41-63, 2004.
[9] R. H. Baayen, Analyzing Linguistic Data: A Practical Introduction to Statistics Using 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10] 이용구, 김성수, 김현중, 다변량 분석 입문, KNOW PRESS, 2010.